

1 개요

마누라본풀이는 마마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맹진국할마님은 마마신 대별상이 자신을 여자라고 업신여기자 대별상 아내의 해산을 도와주지 않다가 대별상이 용서를 구하자 비로소 가서 해산을 시켜주었다.

2 내용

옛날 맹진국할마님이 인간세상에 내려 생불(生佛)을 주려고 돌아다니다가 네거리에 이르렀는데, 사람들에게 마마를 주려고 요란한 행차를 하고 가는 대별상을 만났다. 할마님이 공손히 양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“제가 내려준 아기들은 고운 얼굴 유지할 수 있게 마마를 곱게 내려 줍소서.” 하고 빌었다.

그러나 대별상은 눈을 크게 부라리면서 “여성은 꿈에만 나타나도 새물[邪物]인데, 남자 대장부의 행차에 여성이 웬일이냐? 괘씸하다.” 꾸짖고, 맹진국할마님이 탄생시킨 아이의 얼굴을 아주 얕게 만들어버렸다. 맹진국 할마님은 이를 괘씸하게 보고 나중에는 대별상이 자신에게 크게 사정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.

그 일이 있은 뒤에, 할마님이 생불꽃을 가져다가 대별상부인 서신국마누라에게 포태를 시키니 열두 달이 지나도 해산을 못하였다. 서신국마누라가 사경(死境) 헤매면서 대별상에게 생불할마님을 청해달라고 하였다. 대별상이 마누라가 죽게 된 마당이니 어찌 할 수가 없어 맹진국할마님을 찾아갔다. 가까이 가도 할마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대별상은 댓돌 아래 양무릎을 꿇고 엎드리니 그제야 할마님이 아는 체를 하였다. 자신을 청하고 싶으면 중의 행색을 하고 다시 와서 엎드리라고 하였다.

대별상은 하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다. 대별상이 과거의 용서를 구하며 할마님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집까지 명주를 깔아 다리를 놓았다. 할마님은 그 다리를 밟고 서신국마누라에게 가서 해산을 시켜주었다.

③ 특징

마누라본풀이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멩진국할마님이다. 그 까닭은 신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.

대별상은 마마의 신이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멩진국할마님에게는 퇴치의 대상이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. 대별상은 자신의 본풀이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나는 존재인 셈이다.

④ 핵심어

멩진국할마님, 생불, 대별상, 마마, 새물, 생불꽃, 서신국마누라, 포태, 해산, 명주

⑤ 원전 서지사항

마누라본풀이(현용준·현승환, 《제주도무가》,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, 1996)

⑥ 관련 자료